

동맹국 10% 보편관세 전망... 한미 FTA 재부각 가능성

트럼프, 자국 중심 보호무역 강조
韓, 연간 수출 감소 448억불 전망
“국가 간 긴장·위협 높아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보호무역의 색채가 한층 더 짙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유세 도중 한국에 대해 ‘미국 시장을 착취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액 감소가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는 실제로 동맹국에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국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인하를 공약하고 있다. 1기 집권 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까지 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스시

하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이 관세 인상 및 국내 감세의 동시 추진을 통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내건 경제정책의 주요 골격이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대미 무역흑자는 1~9월 누적기준 399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3년도에 기록한 역대 최대(444억달러)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달 하순 트럼프는 한팻캐스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거래는 정말 형편없다”며 “우리가 부유한 기업들을 위해 수십 억 달러를 내놓

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한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FTA 협상을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특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측에 양보를 압박했었다.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압박이 다시 가해질 경우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KATA)는 올해 초 펴낸 보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누가 되든 자국우선주의는 같았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의 과정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봤다. 이어 “그 과정에서 글로벌 교역은 정체되고, 국가 간 군사적 긴장과 위협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역 중심의 한국 경제와 기업들 입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치명적”이라고 했다. 또 “수혜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덜 피해자만 있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oul.co.kr

방산·금융株 급등...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와르르’

트럼프 행정부, 친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
아시아 증시 희비... 韓·中 하락, 日 상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금융 종목 등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인 2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은 일제히 무너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전·방산 관련주인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화시스템은 이날 각각 2.45%, 6.27%씩 올랐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화석 연료 등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방산, 석유·화학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7.02%), 포스코홀딩스(-5.01%), 삼성SDI(-5.98%), 포스코퓨처엠(-8.26%), 에코프로(-7.61%), 에코프로비엠(-8.63%) 등 2차전지주는 급락세를 보였다.

2차전지주는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카말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8.6원)보다 17.6원 오른 1396.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

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한 만큼 수혜주로 떠올랐다. 지난 4일에는 해리스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당일 에코프로비엠은 7.25%, 에코프로는 7.37% 급등하는 등 코스닥내 대표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다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5% 이상에 달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럼

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전력 공급이 가능한 데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확보한 만큼 한동안 원전 테마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히는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KB금융(3.30%), 신한지주

(3.32%) 등 금융 종목들은 살아남은 모습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다”며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리 상승을 반영한 금융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해리스 기대주로 부각된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주는 나뭇잎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규제 리스크가 낮아지면 금융·결제 기업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트럼프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아시아 증시의 희비도 갈렸다. 국내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0.52%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중국 및 홍콩 증시도 트럼프 유력 소식에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본증시에서 닛케이 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1% 상승하고, 대만 가관지수도 전장보다 0.48%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앤디 김 하원의원 겸 민주당 후보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뉴스시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 당선

미국 뉴저지주(州)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 겸 민주당 후보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당선됐다. 지금까지 한국계 하원의원은 여러 명 있었지만, 상원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김 하원의원은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배쇼 후보를 꺾고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앤디 김은 1982년생으로 42세의 젊은 나이로 상원의원까지 올랐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그는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앤디 김은 지난 달 6일 열렸던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배쇼가 자신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낸 뒤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그를 부축해 유권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한 유권자는 “품위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 “예의 바른 경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승일 기자 won@

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상승폭 이목집중

트럼프, 미국 ‘암호화폐 수도’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6일 가상자산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 대비 11% 상승한 7만5200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시(정오)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

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3월 14일 기록한 7만 3750달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는 1억382만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다. 원화 기준 종전 최고가는 1억500만원으로 120만원도 남지 않았다.

이날 폭등 원인은 천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촉진을 약속하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